

복약지도 넘어 위기가구 발굴·복지안전망 ‘침병’

전문성 살려 다양한 주민 밀착형 건강 사업 추진

이웃 향한 따뜻한 정신… “사각지대 해소 앞장”



〈3〉 광주 동구약사회

약국이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복지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광주 동구약사회는 주민들에게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구약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7년 광주 동구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운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동구약사회에는 90여 개 약국과 200여 명

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주민 밀착형 건강·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동네약국과 함께 있는 복지안전망’, ‘마약류 안전사용 홍보약국’, ‘치매안심약국’ 운영 등이 있다.

‘동네약국과 함께 있는 복지안전망’ 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심화하는 고독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생활밀착형 자원인 동네약국을 통해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동구약사회를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의약품 전달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 가운데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등에 연계하고 있다.



광주 동구약사회와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8월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약국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약사회

동구는 약국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안전사용 홍보약국’ 사업은 일반인도 처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현재 프리미엄누가약국, 조은약국, 지산종로약국, 해오름약국,

대학약국, 동구종로약국, 샘물약국 등 10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약국은 방문 주민들에게 마약 예방 홍보물을 품을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약물중독 상담센터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역 내 28개 치매안심약국은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 치매 인식 개선 활동은 물론 실종·배회 어르신 발견 시 112 신고와 임시 보호를 지원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상훈 광주 동구약사회장은 “약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생활 속 어려움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라며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 약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회원들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이상훈 광주 동구약사회장

김필식 동강·해인학원 이사장 별세…교육계 큰별지다

‘동신대 6·7대 총장’ 등 역임…지역사회발전 큰 발자취 남겨

제6·7대 동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필식 동강·해인학원 이사장이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이사장은 다정하면서도 강인한 ‘어머니 리더십’을 바탕으로 동신대학교 발전을 이끌며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최초의 여성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고,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추진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지역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또 광주발전연구원 이사회 이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회 광주협의회장, 통일부 광주통일관장, 한국연구재단 이사,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남협의회 공동위원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협의회 위원,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광주여고와 서울대 농가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신라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동강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신대 총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는 동신중·동신고·동신여중·동신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강학원 이사장을 맡았으며, 2002~2008년에 이어 2018년부터는 동신대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학 특강을 여는 등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힘을 보탰다.

2017년 동신대 개교 30주년을 앞두고는 현금과 부동산 등 10억8000여만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대학에 기부했으며, 지역사회단체에도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무등여성대상,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금장,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 등을 수상했다.

장례는 동신대학교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동신대 대정도서관 1층 동강홀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8일 오전 10시 동강홀에서 열린다. 장지는 담양군 교서면 고음리 선영이다.

유족으로는 장남 이형석 동강·해인학원 상임이사과 차녀 이주희 동신대 총장 등 1남5녀가 있다.

joinus@gwangnam.co.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실현금 1000만원을 (재) 전남교육 공실현재단 (이사장 김대중·원목 세번째)에 기탁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재 육성 1000만원 기탁

2012년부터 교육기부 실천…누적 기탁금 1억1000만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전상철)가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실현금 1000만원을 (재) 전남교육 공실현재단 (이사장 김대중)에 기탁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012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

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 왔다. 특히 이번 기탁으로 누적 기탁금은 1억 1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회성 후원을 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나눔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상철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 뜻을 이어,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inus@gwangnam.co.kr

광주특별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기업 현장 소통

경영자協 간담회…애로사항 등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적 효과를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확산하기 위한 기업 현장 소통에 나섰다.

광산구는 최근 광주산학융합원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이규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광역본부장, 양오열 빛그린산단 경영자협의회장,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논의 사항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 산업 연계와 빛그린산단 기업 지원, 자치시 전환, 산업단지 현장 애로사항 등이었다.

박병규 구청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단순히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전반으로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그린산단의 행정구역 문제와 기업 지원 격차도 논의됐다.

광산구는 현재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시 전환도 기업 지원과 연계해 논의했다. 광

산구는 자치시로 전환될 경우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를 통해 기업 민원 대응과 지역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청장은 “광산구가 광산시로 전환되면 자치권과 재정권이 확대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들은 산단 내 도로 시설물 정비와 광주빛그린체육관 운영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박 청장은 “빛그린산단은 전남광주 미래차 산업의 주요 거점인 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 14명 참여
독립운동 유적·교육 현장 탐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외 호남향우회의 초청으로 지역 모범청소년 14명이 중국과 미국의 독립운동 유적과 산업·교육 현장을 둘러보는 ‘2026년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해외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호남향우회가 초청한 중국 견학에는 모범청소년 8명과 인솔자가 참여해 광저우와 선전, 홍콩 일원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황푸군관학교와 동산백원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HTWO 광저우와 쿠카(KUKA), 오란스(ORANSI) 등 현지 기업과 선전폴리텍대학을 견학하며 중국의 산업·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홍콩에서는 문화탐방을 통해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미주호남향우회가 초청한 미국 견학에는 모범청소년 6명과 인솔자가 참여해 뉴욕과 메릴랜드,



미국호남향우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모범청소년들이 견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등을 찾았다.

학생들은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를 비롯해 주요 대학과 뉴욕 월가, 유엔(UN) 본부 등을 둘러보며 세계 정치·경제·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최초의 한국인 미국 유학생으로 알려진 변수 선생의 묘지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서재필기념공원도 방문해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한미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해외견학은 해외 호남향우회가 고향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이어온 교류 사업이다.

미주호남향우회 초청 해외견학은 2001년 시작

해 올해까지 23차례에 걸쳐 청소년 306명이 참여했다. 중국호남향우회 초청 견학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도 고향 청소년의 해외 교류와 국제적 경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5000만원의 고향사랑장학금을 마련해 청소년 680명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 견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중국을 처음 방문해 직접 본 급격한 발전상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견학을 계기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워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